

LG화학, 리튬이온전지 미국공장 건설

전기자동차 25만대분 공급 위해 ... 3억-4억달러 투입 2013년 본격생산

LG화학이 미국에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온전지 공장을 세우고 2013년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간다.

LG화학은 미국 자회사 콤팩트파워(CPI)는 Michigan에서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온전지 공장 건설에 3억-4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고 8월6일(현지시간) 발표했다.

리튬이온전지 공장은 2012년 2/4분기부터 가동을 시작해 2013년에 풀가동할 계획으로 완공되기 전까지는 국내에서 생산한 전지를 공급할 예정이다.

콤팩트파워는 GM의 친환경자동차 <볼트>에 차세대 리튬이온전지를 공급할 계획이며, 미국 정부로부터 Michigan 공장 건설비용을 약 1억5100만달러 지원받기로 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08/07>